

광주시체육회장 선관위원 “선거인단 배정 문제 있다”

다음달 선거 앞두고 사퇴 밝혀... 선거인수 놓고 이전 엇갈리며 파문 확산
선수등록 기준일 3월 14일에 정회원 60개 단체 중 13곳만 선거권 부여
체육계 “선수등록 고지 안내 절차상 하자”... 시체육회 차기회의서 재론키로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이 오는 5월 13일 치러지는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체육단체들이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상실해 참정권을 박탈당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체육회장 선거의 컨트롤 타워인 선관위에서도 선거인단 배정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이 A씨는 지난 15일 열린 제3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수 배정 기준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선거를 그대

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환기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사퇴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열린 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으나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계는 물론 선거관리위원들조차도 의견이 갈리는 논란의 핵심은 선거인수다. 초대 회장 선거 당시 불과 10표차로 당락이 갈렸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인수는 관심의 대상이다.

시체육회는 오는 28일까지 투표에 참여할 선거

인단을 최소 290명, 최대 310명으로 꾸릴 계획이다. 선거인단은 광주 60개 정회원 종목단체장과 5개 자치구체육회장, 5개 자치구 종목단체 100명 등 총 16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실상 당연직 선거인단이다.

문제는 나머지 선거인단으로, 시체육회는 보궐 선거일 60일 전까지 선수등록(초·중·고·대학·일반)된 종목 대표(대의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체육회 선관위가 결정한 선수등록 기준일은 선거인명부 작성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인 3월 14일이다.

이에 따라 체육회 정회원 60개 중 27개 종목단체만 선수등록이 이뤄졌고 상위 2분의1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선거인수를 배정키로 하면서 사실상 13개 단체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됐다. 즉, 3월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 대표들은 선거권 행사 기회가 없다.

종목단체 대표들은 시체육회에서 선거인수 기준 일 확정 등과 관련해 60개 종목 단체 등에 선수 등록을 안내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체육 현장에서 선수등록은 통상적으로 학사일정과 선수 이동 등의 사유로 3~5월 대회를 앞두고 수시로 이뤄지는데, 이같은 실정이 감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문제가 된 3월 14일은 사퇴한 전 체육회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장 선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칭)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일 60일 이전 등록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난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

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3차 회의에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선거인수 배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안건을 미뤘다. 선거인수 배정기준과 관련해 가중치 배정에 대한 해석은 대한체육회와 변호사협회의 자문을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선거인수 배정에 대한 종목단체 선거인수 추가 배정(가중치)에 관한 사항도 차기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했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광주시체육회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인수에 대해 논란을 자초해 공정성을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선거를 공정한 틀에서 치르기 위한 대안이나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공정 선거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재창단 광주 동구 복싱팀 ‘금빛 부활’

복싱협회장배 이형석 금메달
이동진·한영훈 동메달 2개

24년 만에 재창단한 광주 동구 복싱팀이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았다. (사진)

18일 광주시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 복싱팀 이형석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31회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 56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69kg급 이동진과 64kg급 한영훈은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52kg급 최현태는 8강에 올랐다.

동구 복싱팀은 1996년 해체됐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재건과 국내 권투 부흥을 위해 지난해 1월 복싱부를 재창단했다.

이들은 ‘명가 재건’을 위해 지난 1년간 담금질을 해왔다.

하지만 동구복싱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종 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공식 무대에서 이름을 알릴 기회를 좀처럼 얻지 못했다.

입력 동구정장은 “과거 광주복싱은 올림픽 등에서 국민과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고, 그 중심에 동구복싱선수단이 있었다”면서 “이번 수상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광주시민과 동구민에게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배구 대한항공 창단 첫 통합우승

챔피언결정 5차전서 우리카드 제압

대한항공이 창단 이래 처음으로 남자 프로배구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7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끝난 도드람 2020-2021 V리그 챔피언결정 5차전(5전 3승제)에서 우리카드를 세트 스코어 3-1(24-26 28-26 27-25 25-17)로 물리쳤다.

이로써 3승 2패를 거둔 대한항공은 정규리그 1위에 이어 챔피언결정전도 제패해 4번째 도전 만에 구단 최초로 통합 우승의 새 역사를 썼다.

V리그 남부에서 통합 우승팀이 나오기는

2013-2014시즌 삼성화재 이래 7년 만이다.

대한항공은 처음으로 정규리그를 석권한 2010-2011시즌엔 챔피언결정전에서 삼성화재에 무릎을 꿇었다. 2016-2017시즌, 2018-2019시즌에도 정규리그 1위로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으나 두 번 모두 현대캐피탈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또 정규리그 3위를 차지하고 챔피언결정전에서 추석을 든 2017-2018시즌 이래 두 번째로 챔피언결정전에서 삼패인을 터뜨렸다.

대한항공은 정규리그 1위 상금 1억2천만원과 챔피언결정전 우승 상금 1억원 등 2억2천만원을 상금으로 받는다.

/연합뉴스

메시 멀티골...바르셀로나 국왕컵 우승

리오넬 메시가 멀티골 활약을 펼친 FC바르셀로나가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결승에서 아틀레틱 빌바오를 누르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바르셀로나는 18일(한국시간) 스페인 세비야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데 라 카르투하에서 열린 2020-2021시즌 국왕컵 결승에서 4-0으로 완승했다.

양투안 그리에즈만의 결승골에 이어 프랭키 더용이 1골 2도움, 메시가 2골을 기록하고 팀에 승리를 안겼다.

이로써 이 대회 최다 우승팀인 바르셀로나는 2017-2018시즌 이후 3년 만에 통산 31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반면 빌바오는 두 시즌 연속 준우승에 그쳤다. 지난 시즌에도 대회 결승에 오른 빌바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가까이 미뤄져 이달 4일에 치러진 2019-2020시즌 결승전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에 0-1로 무릎을 꿇었다.

전반까지 양 팀이 득점 없이 균형을 유지했으나, 바르셀로나는 후반 들어 12분 동안 네 골을 몰아쳤다. 후반 15분 더용이 오른쪽 측면에서 찬 패스를 그리에즈만이 문전으로 쇄도하며 차 넣어 결승골을 뽑아냈다. 3분 뒤에는 더용이 직접 마무리했다.

후반 23분에는 메시가 더용과 패스를 주고받은 뒤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3-0으로 격차를 벌렸고, 4분 뒤 메시의 쐐기골까지 나왔다.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에 따르면 메시는 그간 10차례 국왕컵 결승전에 출전해 9골을 넣었는데, 이 대회 결승에서 그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없다.



18일 스페인 국왕컵에서 우승한 바르셀로나의 메시가 우승컵을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 21일 개막

1위 KCC-5위 전자랜드 대결

프로농구 4강 플레이오프(5전 3승제)가 21일 정규리그 1위 전주 KCC와 5위 인천 전자랜드의 맞대결로 시작된다.

2020-2021시즌 4강 플레이오프는 공교롭게도 그동안 단기간에서 만나 ‘천적 관계’를 보였던 팀들끼리 맞대결이 성사됐다.

먼저 KCC와 전자랜드는 지금까지 플레이오프에서 세 차례 만났다.

2008-2009시즌 6강 플레이오프에서 처음 맞대결해 KCC가 3승 2패로 이겼고, 2010-2011시즌 4강에서도 KCC가 3승 1패로 챔피언결정전 티켓을 가져갔다.

또 2017-2018시즌 6강에서도 KCC가 5차전 접전 끝에 3승 2패로 전자랜드를 따돌려 세 번의 플

레이오프 맞대결에서 모두 이겼다.

특히 전자랜드는 2008-2009시즌과 2017-2018시즌 6강에서 모두 KCC를 상대로 2승 1패 우위를 잡고도 4, 5차전을 연달아 내줬고, 2010-2011시즌 4강에서는 1차전을 먼저 따낸 뒤 3연패하는 등 유독 KCC를 상대로 한 플레이오프에서 결정적인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전자랜드는 KCC 전창진 감독을 상대로 한 플레이오프에서도 약했다.

전창진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던 2003-2004시즌 원주 TG삼보와 4강에서 만나 3전 전패를 당했고, 2011-2012시즌과 2013-2014시즌 부산 kt와 6강에서는 모두 2승 3패로 졌다.

2011-2012시즌과 2013-2014시즌 kt와 전자랜드의 6강 플레이오프는 이번 4강처럼 전창진 감독과 유도훈 감독의 맞대결이기도 했다.

정규리그 2위 울산 현대모비스와 3위 안양 KGC인삼공사의 대결도 비슷한 경우다.

두 팀이 지금까지 단기간에서 만난 것은 2016-2017시즌 4강 플레이오프와 2017-2018시즌 6강 플레이오프 두 번이었는데 두 번 다 인삼공사가 이겼다.

두 차례 단기간 맞대결 당시 사령탑은 지금과 같은 현대모비스 유재학, 인삼공사 김승기 감독이었다. 플레이오프 통산 58승으로 최다승 감독인 유재학 감독이지만 유독 김승기 감독을 상대로는 1승 6패에 그쳤다.

김승기 감독은 플레이오프 통산 감독 승률 부문에서는 최인선 전 SK 감독(34승 20패)과 함께 공동 1위(17승 10패·63%)에 올라 있다.

유재학 감독은 58승 44패, 56.9%로 승률 부문은 5위다.

2020-2021시즌 정규리그 맞대결 전적은 KCC와 인삼공사가 4승 2패를 기록, 전자랜드와 현대모비스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복
2관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3관	어른들은 몰라요
4관	서복
5관	서복
6관	서복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자신어보
7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마나리, 노바디, 최면
8관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고질라 VS. 콩, 최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GAC 11시 음악산책1
박혜상의 사랑스런 것들을 위한 노래
일시 : 2021.04.29(목)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334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